

# 사회적 담론과의 비교를 통한 문헌정보학 분야 고령화 연구의 방향성 탐색\*

- 뉴스 기사와 학술 논문의 토픽 모델링 및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

## Exploring the Future Directions of Aging Research in LIS through Comparison with Social Discourse: Topic Modeling and Network Analysis of News Articles and Scholarly Publications

한 승 희 (Seunghee Han)\*\*

### 초 록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25년까지의 고령화 관련 뉴스 기사 80,000건과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 등재지 논문 46편을 대상으로 토픽 모델링과 동시출현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여 두 영역 간의 인식적·구조적 차이를 규명하였다.

분석 결과, 뉴스 담론에서 고령화는 주로 정치·행정 및 지역 복지 프레임 내에서 수동적 관리 대상으로 구조화되어 있었으며, '지역', '정부', '복지' 키워드가 높은 중심성을 보였다. 반면 문헌정보학 연구는 고령자를 능동적 정보 주체로 인식하며 디지털 소외 및 정보격차 문제를 핵심 의제로 다루었다. 네트워크 분석 결과 '디지털', '만족', '행태'가 핵심 노드로 등장하여 뉴스 담론과 뚜렷한 인식 차이를 보였다. 또한 뉴스 담론이 인지 저하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룬 것과 달리, 문헌정보학 연구는 인지적으로 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연구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문헌정보학 분야의 연구 방향으로 고령자 정보 기본권의 사회적 확산, 치매 및 인지 저하 계층을 포괄하는 정보 돌봄 연구의 확대, 기술 습득을 넘어선 디지털 삶의 질 중심의 통합적 접근을 제안하였다.

### ABSTRACT

This study identified the cognitive and structural differences between news discourse and academic discourse in the field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garding aging. Using topic modeling and co-occurrence network analysis, the research analyzed 80,000 news articles and 46 peer-reviewed LIS journal articles published in Korea from 2010 to 2025.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news discourse framed aging primarily as a 'passive subject of management' within political, administrative, and local welfare contexts, with keywords such as 'region,' 'government,' and 'welfare' showing high centrality. Second, conversely, LIS research perceived the elderly as 'active information agents' and addressed digital exclusion and the information gap as core agendas. Network analysis revealed that 'digital,' 'satisfaction,' and 'behavior' emerged as key nodes, demonstrating a clear cognitive disparity from news discourse. Third, while news discourse emphasized cognitive decline issues like dementia, LIS research tended to focus on programs for cognitively healthy seniors.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proposes future research directions for the LIS field: (1) expanding social advocacy for the basic information rights of the elderly, (2) broadening 'information care' research to encompass those with cognitive impairments, and (3) adopting an integrated approach centered on 'digital quality of life' beyond mere technical proficiency.

키워드: 고령화, 초고령사회, 문헌정보학, 뉴스 담론, 뉴스 빅데이터, 텍스트 마이닝, 토픽 모델링, 네트워크 분석, 정보 돌봄, 디지털 격차  
Aging, Super-aged Society,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News Discourse, News Bigdata, Text Mining, Topic Modeling, Network Analysis, Information Care, Digital Divide

\* 이 논문은 서울여자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한 것임(2026-0029).

\*\* 서울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hanshee@swu.ac.kr / ISNI 0000 0004 6824 6058)  
논문접수일자 : 2026년 2월 19일 논문심사일자 : 2026년 3월 8일 게재확정일자 : 2026년 3월 18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7(1): 311-335, 2026. <http://dx.doi.org/10.14699/kbiblia.2026.37.1.311>

\* Copyright © 2026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 1. 서론

### 1.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한국 사회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속도로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통계청(2023)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는 고령사회 진입 후 불과 8년 만의 일로,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빠른 속도이다. 이러한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 속에서 고령층은 단순한 보호 대상을 넘어 능동적인 정보 소비자이자 생산자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는 공공도서관의 역할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24~2028)』에서는 ‘사회적 포용 실천’을 핵심 가치로 설정하였다. 특히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강화와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향상을 국가적 차원의 주요 방침으로 명시하며, 고령층을 지역 공동체의 활력을 높이는 주체로 재정의하고 있다(국가도서관위원회, 2024). 이에 따라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도 노년층의 정보소외 해소와 고령자 친화적 정보환경 조성 등 실천적·학술적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요구를 실제 서비스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고령화 현상을 둘러싼 방대한 담론의 흐름을 정밀하게 진단해야 하며, 텍스트 마이닝 기법은 이러한 담론의 지형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유용한 도구가 된다.

한편 사회 문제에 대한 대중적 인식은 주로 언론 보도를 통해 형성되는 반면, 학술 연구는 해당 문제를 이론적으로 해석하고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두 담론 영역에서는 동일한 사회 현상이라도 서로 다른 문제 인식과 해석 방식이 나타날 수 있다. 국내 미디어 담론은 고령화를 국가적 위기 담론으로 프레임하며 그 과정에서 노년층을 주로 복지 수혜나 보호가 필요한 수동적 객체로 타자화하는 경향을 보인다(이우철, 이장석, 2025; 정순돌 외, 2011). 반면, 문헌정보학 분야의 연구들은 노년층이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를 탐색, 활용, 공유하며 새로운 지식을 형성해 나가는 능동적 정보 주체라는 점에 주목해 왔다. 특히 최근의 연구들은 고령층의 정보 리터러시 역량이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동력임을 전제하고 있다(이현아, 장우권, 2024; 차미경, 2018).

따라서 이러한 인식과 지향의 괴리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미디어 담론이 수동적 프레임에 고착될 경우 문헌정보학계가 지향하는 포용적 정보 서비스가 사회적 동력을 얻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두 담론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은 새로운 연구 의제를 발굴하고 실천적 정책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선결 과제가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뉴스 담론과 학술 연구를 비교하는 작업은 고령화라는 사회 현상이 공공 담론과 학문적 논의에서 어떠한 의미 구조 속에서 구성되고 있는지를 구조적으로 이해하는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특히 언론 보도와 학술 연구는 사회 문제를 인식하고 해석하는 서로 다른 담론 체계라는 점에서, 두 영역의 주제 구조와 의미 관계를 비교 분석하는 것은 고령화 담론의 인식 지형을 보다 입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 1.2 연구 목적 및 연구 질문

본 연구의 목적은 토픽 모델링과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2010년부터 2025년까지 형성된 고령화 관련 뉴스 담론과 문헌정보학 학술지의 주제 구조를 비교 분석하고, 두 영역 간에 존재하는 인식과 구조의 차이를 규명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는 문헌정보학 분야의 실천적 연구 방향을 도출하고,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향후 연구 및 서비스의 전략적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뉴스 기사와 문헌정보학 학술 논문이라는 서로 다른 텍스트 집합에서 고령화 담론이 어떠한 주제 구조와 의미 관계 속에서 구성되고 있는지를 탐색적으로 비교하고자 한다. 특히 토픽 모델링을 통해 두 담론 영역의 주요 주제 구조를 파악하고, 동시 출현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단어 간 의미 관계의 구조적 특성을 비교함으로써 고령화 담론의 인식 지형을 구조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다.

- [RQ1] 국내 뉴스에서 고령화는 어떤 주요 담론 구조로 구성되는가?
- [RQ2] 뉴스 기사의 고령화 담론 구조는 국내 문헌정보학 고령화 관련 연구의 주제 구조와 어떻게 비교되는가?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개념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노화’, ‘노인’, ‘시니어’, ‘고령층’, ‘초고령화’ 등 고령화 관련 특성과 인구 통계적 현상을 지칭하는 유사 용어들을 ‘고령화’라는 범주로 통합하여 기술한다.

## 2. 이론적 배경

### 2.1 노년학 패러다임의 진화

노년학(gerontology) 분야의 패러다임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진화해 왔다. 초기 담론은 Rowe와 Kahn(1997)의 ‘성공적 노화(successful aging)’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나, 이는 신체적 건강이라는 이상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쇠퇴를 겪는 대다수 노인을 배제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김일식, 김계령, 2019). 이를 보완하기 위해 WHO(2002)는 건강, 참여, 안전의 최적화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능동적 노화(active aging)’를 공식화하며 사회적 활동의 가치를 역설했다.

최근에는 노년기를 자아실현과 문화적 창조성의 시기로 인식하는 ‘창의적 노년(creative aging)’ 패러다임이 부상하고 있다(Cohen, 2006). 이는 고령층이 독서, 예술, 평생학습 등 지식정보 활동 등 창의적 활동을 통해 생애 경험을 재구성하며 사회적 문화 생산자로 기능하는 것을 의미한다. 창의적 활동은 노년기의 뇌 가소성을 자극하여 인지 기능 유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치매 등 인지적 취약성을 겪는 노인에게도 내면의 잠재력을 발현시키고 삶에 대한 주체적 통찰을 이끌어내는 핵심 동력이 된다(변혜진, 양모란, 2025).

결국 노년학에서의 노화에 대한 패러다임의 진화는 노인을 단순한 보호 수혜자인 ‘객체’에서 정보와 문화를 생산하는 ‘주체’로 재정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노년층을 능동적 정보 주체로 간주하는 문헌정보학적 관점과 학문적으로 궤를 같이하며, 정보·문화의 핵심 인프라인 공공도서관이 초고령사회에서 창의적 노

화를 지원하는 주도적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의미한다.

## 2.2 고령화 이슈의 미디어 재현과 사회적 담론

미디어는 의제설정(McCombs & Shaw, 1972)과 프레이밍(Goffman, 1974)을 통해 대중의 인식을 형성하는 강력한 기제이다. 특히 고령화와 같은 거시적 사회 변화는 언론 보도를 통해 그 문제의 성격과 해결 방안이 규정되는데, 김미혜(2003)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언론은 노인 집단을 주로 신체적 질병이나 경제적 빈곤과 결부시켜 부정적인 이미지로 재현(representation)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노인을 주체적 시민이기보다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수동적 수혜 대상으로 구조화한다.

최근의 텍스트 마이닝 연구에서도 언론은 개별 노인의 삶의 질보다는 정부의 정책적 대안 등 거시적 의제에 집중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우명리우 외, 2024). 이러한 정책 중심 프레이밍은 대중적 담론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며, 노인을 사회 시스템이 규정한 특정 역할에 고착시킨다(한선보, 이현심, 2016). 이처럼 노인을 복지 및 의료의 객체로 조명하는 거시적 담론은 그들의 주체성을 소외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고령 이용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보 환경을 탐구해 온 문헌정보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사회적 인식의 흐름을 학술적 담론과 비교해 보는 과정은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 2.3 초고령사회 도서관의 역할

초고령사회에서 도서관은 정보 복지(information

welfare)의 거점이자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핵심 플랫폼으로 역할을 재정립하고 있다. 정보 복지란 모든 시민이 제약 없이 필요한 정보를 획득·활용하는 상태로, 이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보편적 복지 개념이다(Britz, 2004). 특히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고령층의 정보 소외는 불평등을 심화시키므로, 고령자의 정보접근권 보장은 시민권 유지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다(권건보, 방동희, 2023). 이러한 측면에서 공공도서관은 높은 접근성과 사서라는 인적 자원을 통해 고령자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최적의 인프라이다. 윤혜영(2017)은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국가 차원의 고령층 대상 정보 정책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고령층에 대한 정보 접근권의 실현 외에도 도서관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고령자의 자기효능감을 높여 능동적 노화의 토대를 마련하며(강보라 외, 2014; 장로사, 2025), 보조공학 기기, 유니버설 디자인 등을 적용한 최적화된 환경은 시니어 이용자의 주체성을 회복시킬 수 있다(최재은 외, 2023).

더 나아가 도서관은 인지적 취약계층까지 포괄하는 '사회적 처방(social prescribing)' 및 '치매 포용적 도서관(dementia-friendly libraries)'으로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사회적 처방이란 치매를 포함한 경증 정신질환을 겪는 환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의 비의료적 서비스(예술, 운동, 독서 등)를 연결해주는 모델을 의미한다. 독서 토론이나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도서관은 고령자의 정서적 안녕을 증진하는 치료적 공간(therapeutic space)으로 기능할 수 있으므로 사회적 처방의 핵심적인 수행 공간이

될 수 있다(Brewster, 2014).

도서관의 이러한 포용적 역할은 치매 이용자를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로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 IFLA(2007)는 치매 환자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으며 Charbonneau와 Rathnam(2020)은 도서관 내 메모리 카페(Memory Cafés) 운영을 통해 치매 환자와 간병인이 안전하고 우호적인 환경에서 사회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포용적 프로그램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는 도서관이 치매 환자와 가족의 삶을 지탱하는 사회적 안전망이자 치료적 공간으로 진화해야 함을 시사한다.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절차는 <그림 1>과 같다. 먼저 고령화 관련 뉴스 기사와 학술 논문을 수집하여 분석 코퍼스를 구축하고, 형태소 분석 및 불용어 제거를 통해 분석 어휘를 정제하였다. 이후 텍스트의 잠재 주제 구조 파악을 위해 토픽 모델링을 수행하였으며, 단어 간 동시출현 관계를 기반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구조적 분화 양상을 확인하는 커뮤니티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도출된 각 자료군의 주제 구조와 의미망을 바탕으로 두 영역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였다.

### 3. 연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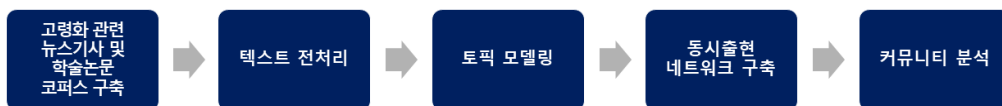
#### 3.1 연구 설계

뉴스 기사가 시의성 있는 이슈를 반영하여 대중적 인식을 형성한다면, 학술 논문은 이론적 관점을 바탕으로 주제를 정제하여 학술적 지식을 축적한다는 점에서 담론의 성격이 상이하다. 이처럼 성격이 다른 두 자료군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분석의 도구를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뉴스 기사와 학술 논문을 대상으로 각 영역의 구조적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동일한 분석 절차를 두 자료군에 각각 적용함으로써 담론 간의 관계를

#### 3.2 데이터 수집

본 연구는 고령화 관련 사회적 담론과 문헌정보학 분야의 연구 동향을 동일한 시계열 범위에서 비교하기 위해 2010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간된 뉴스 기사와 학술 논문을 2026년 1월에 수집하였다. 두 텍스트 집합의 수집 기간을 동일하게 설정하여 특정 시기적 차이가 결과 비교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였다.

데이터 수집의 시작 시점을 2010년으로 설정한 것은 이 시기를 전후하여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이로 인해 노인 부양 부담, 고령층 소비 구조 변화 등 고령화 관련 이슈가 사회 전반의 주요 의제로



<그림 1> 연구 분석 프레임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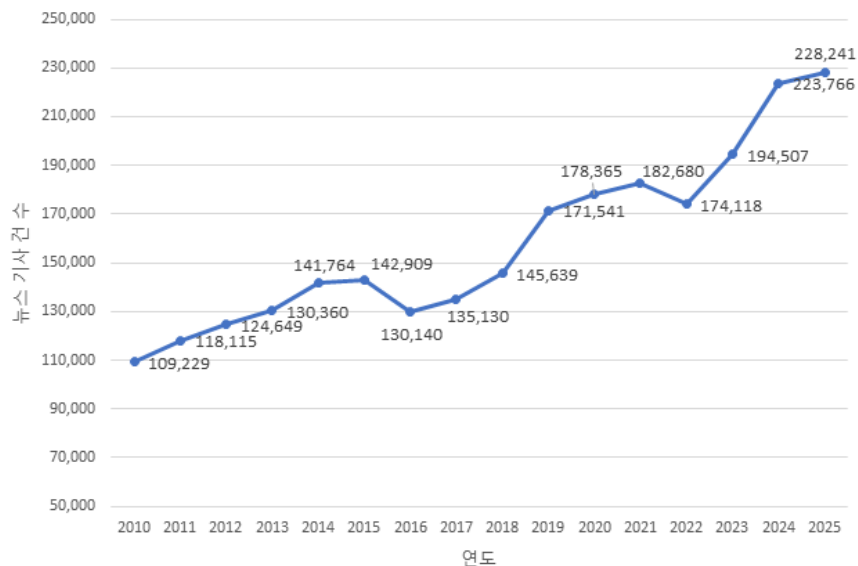
부각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변미리, 2010). 이러한 변화는 고령화가 인구통계적 현상을 넘어 정책·경제·복지 등 사회 전반에서 논의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관련 뉴스 보도와 학술 연구의 축적 또한 2010년 이후 본격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 3.2.1 뉴스 기사

고령화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빅카인즈(BigKinds)를 활용하였다. ‘노인’, ‘고령’, ‘고령화’, ‘노화’, ‘고령층’, ‘시니어’, ‘어르신’을 질의어로 검색한 결과, 104개 언론사에서 총 2,531,153건의 기사가 확인되었다. 보도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2>에서와 같이 2010년 약 10만 건에서 2025년 약 22만 건으로 장기적인 증가 추세가 확인되었으며, 특히 2020년 이후 기사 수가 가파르게 상승하여 고령화 현안에 대한 사회적 주목도가 높아

졌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뉴스 보도량은 연도별로 편차가 크며, 특히 최근 시기로 갈수록 보도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보도량의 불균형은 특정 시기의 담론이 전체 분석 결과에 과도하게 반영되는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단순 키워드 출현 빈도에 의존하는 대규모 데이터 분석에서는 희소하지만 중요한 사회적 의제가 대량의 일상적 보도에 묻힐 위험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도별 기사 수의 차이를 통제하고 시기별 담론 구조를 상호 균형 있게 비교하기 위해 층화 무작위 추출(stratified random sampling)을 실시하였다. 각 연도별로 5,000건의 기사를 추출하여 총 80,000건의 뉴스 기사 코퍼스를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여 시기별 담론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분석의 정밀도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그림 2> 고령화 관련 뉴스 기사 연도별 보도 추이

### 3.2.2 학술 논문

본 연구에서는 문헌정보학 분야의 고령화 관련 연구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KCI 등재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수집하였다. 검색어는 ‘고령’, ‘고령층’, ‘노인’, ‘노화’, ‘시니어’에 ‘정보’와 ‘도서관’을 조합하여 구성하였다. 뉴스 기사와 달리 학술 논문은 전체 데이터 규모가 적기 때문에 전체 검색 결과에서 고령화와 직접적 관련성이 낮은 논문을 제외한 총 46편의 논문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분석 텍스트는 각 논문의 제목, 초록, 저자 키워드로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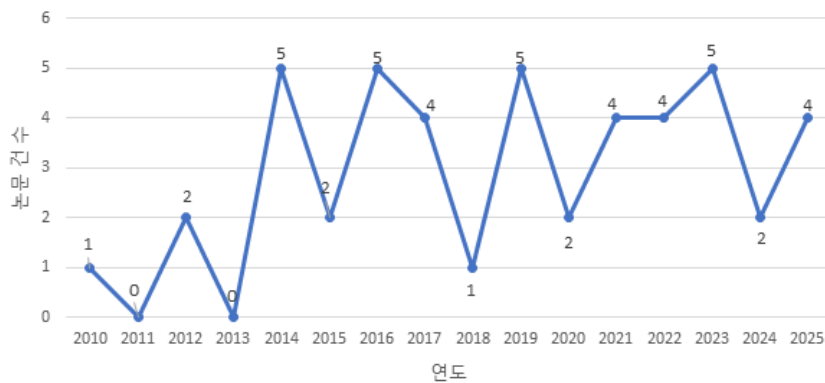
연도별 논문 발표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3>에서와 같이 고령화 관련 연구는 특정 시기에 집중되기도 하는 연간 1~5편 내외로 비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2014년, 2016년, 2019년, 2023년에는 각각 5편의 논문이 발표되어 상대적으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뉴스 기사와 학술 논문은 데이터 규모 면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이는 뉴스 기사가 방대한 매체 수를 기반으로 대중

적 현안을 양적으로 확산시키는 반면, 학술 논문은 제한된 학술지 내에서 정제되고 집약된 주제적 밀도를 지향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46편의 논문은 분석 기간 내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생산된 고령화 연구의 전수에 해당한다. 따라서 데이터의 양적 차이와 관계없이, 두 영역 간의 구조적 간극을 규명하기 위한 비교 대상으로서 충분한 학술적 타당성을 갖는다.

### 3.3 텍스트 전처리

수집된 데이터의 분석을 위해 Python의 KoNLPy (Okt) 형태소 분석기를 활용하여 전처리를 수행하였다. 먼저 명사 어휘를 추출하고, 조사 및 접속사 등을 불용어로 처리하여 제거하였다. 특히 학술 논문 분석 시에는 검색어로 사용된 ‘노인’, ‘고령’, ‘시니어’ 등의 고빈도 공통어를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는 주제적 동질성이 강한 학술 텍스트에서 변별력을 저해하는 고빈도 주제어를 제거함으로써 문헌정보학 연구의 세부 구조를 정밀하게 식별하기 위함이다. 반면,



<그림 3> 문헌정보학 분야 고령화 관련 연도별 논문 발표 추이

뉴스 기사 분석에서는 고령화 현상이 정치·경제 등 외부 맥락과 결합하여 형성하는 사회적 담론의 핵심 허브를 확인하고자 해당 키워드를 유지하였다.

또한, 개념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자 정의 사전을 구축하여 ‘정보격차’, ‘노인복지’, ‘디지털리터러시’ 등 주요 복합명사를 단일 어휘 단위로 통합하였다. 복합명사는 형태소 분석 과정에서 분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미적으로 하나의 개념 단위를 이루는 결합어를 선별하여 사용자 사전에 등록하고 단일 토큰으로 처리하였다. 또한 동일 의미의 표기 변형은 통합하되 의미 차이가 있는 용어는 구분하여 처리하였으며, 이렇게 최종 확정된 어휘 집합은 토픽 모델링과 동시출현 네트워크 분석을 위한 데이터로 활용되었다.

### 3.4 분석 방법

#### 3.4.1 토픽 모델링

전처리된 뉴스 기사와 학술 논문의 잠재 주제 구조를 도출하기 위해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모델을 적용하였다. LDA는 문서를 여러 주제의 확률적 혼합으로 가정하고, 각 주제를 단어 분포의 집합으로 추정하는 확률 기반 토픽 모형이다(Blei et al., 2003). 본 연구는 Python의 gensim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LDA 모형을 학습하고 개별 문서에 내재된 잠재적 의제를 추출하였다.

최적의 토픽 수(K) 결정을 위해 다양한 K 값을 반복 설정하며 토픽 간 구분도와 해석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뉴스 데이터의 경우 K=10, 15, 20, 25를 비교한 결과, 범주의 적절한 분별력과

응집력을 보인 K=20을 최종 토픽 수로 확정하였다. 반면, 데이터 수가 적은 학술 논문은 과도한 과편화를 방지하기 위해 K=5로 설정하였으며, 각 문서에 대해 가장 높은 사후 확률을 갖는 토픽을 대표 주제로 할당하였다.

#### 3.4.2 동시출현 네트워크 분석

본 연구에서는 토픽 모델링을 통해 도출된 주요 주제 구조를 파악한 후, 뉴스 기사와 학술 논문 간 단어의 의미 관계를 비교하기 위해 Python의 NetworkX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동시출현(co-occurrence)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대상의 규모와 텍스트 특성을 고려하여, 두 데이터 집단에 서로 다른 동시출현 기준을 적용하였다.

먼저 학술 논문은 텍스트의 정제도와 주제 밀도가 높으므로 동일 문서 내 단어 출현을 기반으로 하는 문서 단위 Co-word 분석을 적용하였다. 반면, 대규모 담론이 혼재된 뉴스 기사는 의미적 인접성을 정밀하게 반영하기 위해 슬라이딩 윈도우(sliding window) 방식을 채택하였다.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은 단어 주변의 일정 범위 내에서 나타나는 단어 관계를 기반으로 의미적 연관성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자연어 처리와 분포 의미론 연구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특히 단어 간 연관성은 일정 범위의 단어 맥락 내에서 나타나는 동시출현 관계를 통해 추정될 수 있으며(Church & Hanks, 1990), 이러한 접근은 의미적 근접성을 반영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용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단어 간 의미적 관계를 포착하면서도 과도한 연결을 방지하기 위해 window size를 5로 설정하였다. 또한 분석의 유의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

시출현 빈도가 20회 이상인 단어 쌍만을 연결선(edge)으로 설정하고, 출현 빈도 상위 30개 단어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였다.

특히 뉴스 담론 내에서 '고령화'와 직접 연관된 의미망을 집중 분석하기 위해, '노인', '고령', '고령화'를 중심 노드로 설정한 1-hop 서브그래프(subgraph)를 구축하여 타 주제의 간섭을 배제하였다. 최종적으로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연결 중심성(degree centrality), 매개 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 강도(strength)를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 3.4.3 커뮤니티 분석

도출된 네트워크 내부의 군집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Louvain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Louvain 알고리즘은 모듈러리티(modularity)를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네트워크를 여러 개의 커뮤니티로 분할하는 기법으로, 대규모 네트워크에서도 효율적인 군집 탐지가 가능하다(Blondel et al., 2008). 모듈러리티 지표가 높을수록 군집 내 연결 밀도가 무작위 연결보다 높음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의미론적으로 연관된 하위 담론 범주를 식별할 수 있다(Newman, 2010).

이 알고리즘은 먼저 각 노드를 개별 커뮤니티로 설정한 후 인접 노드와의 이동에 따른 모듈러리티 변화량을 계산하여 최대 증가를 보이는 커뮤니티로 노드를 재배치한다. 이후, 동일 커뮤니티에 속한 노드들을 하나의 거대 노드(super node)로 통합하여 네트워크를 재구성하고, 더이상 모듈러리티가 증가하지 않을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한다. 본 연구에서는 Python의 community-louvain 패키지를 활용하여 커뮤니티를 도출하였으며, 각 군집의 주요 구성 단

어와 중심성 지표를 종합 검토하여 고령화 담론의 하위 구조적 분화 양상을 분석하였다.

## 4. 연구 결과

본 장에서는 고령화 관련 뉴스 기사와 학술 논문의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4.1절은 뉴스 기사를 통한 사회적 담론의 구조화 양상을, 4.2절은 문헌정보학 분야의 학술 연구 동향 및 지적 구조를 분석한다. 최종적으로 4.3절에서는 두 영역 간의 담론적 차이를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 4.1 뉴스 기사 분석 결과

#### 4.1.1 토픽 모델링 분석 결과

LDA 토픽 모델링을 적용한 결과, 뉴스 기사 데이터에서 총 20개의 토픽이 도출되었다. 각 토픽의 의미는 토픽별 상위 15개 주요 키워드를 기준으로 해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토픽의 주제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표 1>은 도출된 20개 토픽의 레이블과 상위 15개 키워드를 제시한 것이다.

도출된 상위 키워드들은 각 토픽의 핵심 주제를 식별하는 데 유효하였다. 데이터 전처리에도 불구하고 뉴스 데이터의 특성상 언론사명이나 기사용 상투어(예: 브레이크뉴스, 기념촬영 등)가 일부 포함된 노이즈가 관찰되었으나, 토픽의 전체적인 의미망을 해석하는 데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뉴스 기사라는 매체 특성으로 인해 일부 토픽 간 기능적 경계가 부분적으로 중첩되거나, 고령화라는 핵심

〈표 1〉 뉴스 기사 토픽 모델링 분석 결과

토픽번호	토픽 레이블	상위 15개 키워드
1	범죄 사건·피해 사례	피해, 경찰, 경찰서, 사건, 전날, 범죄, 택시, 카드, 전통시장, 소비자, 피해자, 혐의, 사기, 불법, 힐링
2	취약계층·복지시설 서비스	취약계층, 시설, 장애인, 복지, 대구, 서울시, 경남, 통합, 이용, 설치, 점검, 시민, 보호, 교통, 발굴
3	국가경제·국제정치 담론	한국, 국민, 경제, 정부, 국가, 대통령, 세계, 국내, 미국, 대표, 일본, 성장, 위기, 중국, 시장
4	지역사회 복지센터 활동	센터, 교육, 주민, 복지, 마을, 활동, 돌봄, 경로당, 프로그램, 복지관, 생활, 건강, 맞춤, 보건소, 종합
5	지방자치단체 행정·정치 이슈	군수, 군민, 산불, 충북, 지사, 현안, 브레이크뉴스, 맞이, 수여, 충북도, 사과, 진천군, 적십자사, 역대, 취임
6	의회 정치·행정 활동	시민, 의원, 부산, 위원회, 의회, 군수, 광주, 행정, 국회, 군민, 시장, 지방, 회의, 전남도, 단체
7	농촌·농업 활동	경북, 농촌, 농업, 전남, 농가, 교통, 농업인, 차량, 이동, 작업, 농업기술, 영농, 교통사고, 돕기, 도로
8	정치·선거 담론	대통령, 국민, 후보, 대표, 의원, 민생, 이재명, 민주당, 공약, 선거, 미국, 정치, 논란, 발언, 투표
9	의료·병원 서비스	의료, 병원, 접종, 이상, 치료, 보건소, 디지털, 교수, 환자, 진료, 건강, 검사, 바이오, 건강관리, 케어
10	기부·봉사 활동	봉사, 사랑, 나눔, 직원, 기부, 가정, 가구, 울산, 복지관, 독거노인, 봉사활동, 기탁, 소득, 지역, 이웃
11	건강 위험·질병 정보	건강, 발생, 질환, 치료, 원인, 위험, 환자, 폭염, 식품, 사용, 사망, 기능, 로봇, 제품, 질병
12	청년 일자리·취업	일자리, 청년, 충북, 고용, 취업, 모집, 활동, 방역, 청주, 근로자, 로봇, 구직, 시니어클럽, 장원, 전주시
13	치매 관련 산업·건강정보	치매, 식품, 출시, 판매, 제품, 박람회, 치매환자, 피부, 효과, 미국, 건강, 인지, 재배, 남성, 면역
14	정부 재정·경제 대응	정부, 전국, 경제, 국가, 대응, 지원, 평가, 상황, 서울시, 국민, 일본, 위기, 서울, 예산, 재정
15	장애인·아동 복지시설	취약계층, 시설, 장애인, 인천, 복지관, 이용, 대전, 취약, 보호, 설치, 재단, 아동, 기관, 종합, 어린이
16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센터, 복지, 주민, 마을, 돌봄, 경로당, 생활, 맞춤, 건강, 행복, 프로그램, 정장, 향상, 활동, 통합
17	교육·문화 프로그램	교육, 문화, 안전, 대학, 전북, 울산, 학교, 홍보, 주관, 학생, 프로그램, 체험, 출생, 예방, 수상
18	지역 공동체 봉사활동	봉사, 사랑, 나눔, 협의, 직원, 기부, 가정, 업무협약, 가구, 활동, 복지관, 회원, 독거노인, 관내, 봉사활동
19	산업·기술 발전	한국, 인구, 기업, 산업, 도시, 개발, 기술, 미래, 혁신, 기반, 협력, 대표, 세계, 발전, 활용
20	감염병·예방접종	발생, 강원, 감염, 사고, 재난, 춘천, 확인, 마스크, 예방, 확산, 사망, 기념촬영, 자산, 독감, 강원도

주제가 전면에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파생 담론들도 함께 확인되었다.

특히 일부 토픽의 경우 ‘노인’ 또는 ‘고령화’와 같은 키워드가 직접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경우도 확인되었다. 이는 뉴스 담론에서 고령화 이슈가 특정 정책이나 복지 영역에 한정되 기보다 정치, 경제, 범죄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와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는 특성에 기인한다. 예를 들어 ‘범죄 사건· 피해 사례’ 토픽은 노인을 포함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범죄 피해 보도와 관련된 기사 맥락에서 등장하는 경우가 많으며, ‘국가경제· 국제정치 담론’ 및 ‘의회 정치· 행정 활동’ 토픽 역시 고령화 정책, 복지 재정, 인구 구조 변화 등에 관한 정책적 논의가 포함된 기사에서 형성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뉴스 담론에서 고령화 이슈가 단일 정책 의제로만 나타나기보다 다양한 사회적 의제와 결합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토픽 구조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동일한 조건에서 세 개의 반복 표본을 구성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개별 토픽의 세부 키워드 구성에는 일부 변동이 존재하였으나, 토픽이 형성하는 상위 수준의 기

능적 구조는 전반적으로 일관되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치· 행정· 정책, 지역 복지· 돌봄, 건강· 의료와 관련된 범주는 모든 표본에서 공통적으로 도출되었으며, 각 범주의 상대적 비중 또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뉴스 담론의 주요 구조가 특정 표본에 의해 우연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모집단 내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존재하는 담론 패턴임을 의미한다.

토픽 간 의미 경계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각 토픽의 상위 30개 단어를 추가로 추출하여 재검토했으며, 그 결과 개별 토픽들은 기능적· 담론적 유사성에 따라 상위 수준의 범주로 재구성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20개 토픽을 ‘정치· 행정· 정책’ 맥락, ‘지역 복지· 돌봄’, ‘건강· 의료’, ‘산업· 노동· 지역경제’, ‘사건· 범죄’ 맥락, ‘복지시설 일반’ 등 여섯 개의 기능적 상위 범주로 구조화하였다. 특히 ‘복지시설 일반(토픽 15)’ 범주의 경우, 프로그램 및 서비스 중심의 ‘지역 복지· 돌봄’ 담론과 구분하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시설 중심의 담론을 중심으로 하는 별도 범주로 분류하였다. 20개의 토픽을 6개의 상위 범주로 매핑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뉴스 기사 토픽의 상위 범주화 결과

상위 범주	토픽 번호	토픽 수	비율 (%)
정치· 행정· 정책	3, 5, 6, 8, 14	5	25.0
지역 복지· 돌봄	2, 4, 10, 16, 17, 18	6	30.0
건강· 의료	9, 11, 13, 20	4	20.0
산업· 노동· 지역경제	7, 12, 19	3	15.0
사건· 범죄 맥락	1	1	5.0
복지시설 일반	15	1	5.0
합계		20	100.0

상위 범주로 재분류한 결과, 뉴스 담론에서 고령화는 단일한 정책 의제로 다루어지기보다 정치, 복지, 의료 등 여러 사회 영역에 걸쳐 분산되어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특히 지역 복지·돌봄 영역과 정치·행정·정책 영역이 뉴스 담론에서 가장 중심적인 축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건강·의료 영역 역시 주요 담론 영역으로 나타났다.

시기별 뉴스 담론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상위 범주별 기사 수와 비율을 비교한 결과, 전 기간에서 정치·행정·정책과 지역 복지·돌봄 범주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두 범주의 비율은 2010~2014년(36.3%, 31.7%), 2015~2019년(36.1%, 32.1%), 2020~2025년(35.5%, 31.1%)로 나타나 큰 폭의 변동 없이 유지되었다. 이는 고령화 관련 뉴스 담론이 장기간에 걸쳐 정책·행정적 논의와 지역 기반의 복지·돌봄 실천 맥락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반면 복지시설 일반 범주는 2010~2014년 13.2%, 2015~2019년 13.5%에서 2020~2025년 17.1%로 증가하여 최근 시기에 취약계층 및 시설 관련 담론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건강·의료 범주는 2010-2014년 9.7%, 2015-2019

년 9.9%에서 2020-2025년 8.3%로 소폭 감소하였다. 다만 본 연구는 시기별 균등 표본추출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이므로 기사량의 변화보다는 담론 구성의 상대적 비중 변화를 중심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산업·노동·지역경제 및 사건·범죄 범주는 전 기간에서 각각 약 5% 내외와 3% 내외 수준을 유지하며 비교적 낮은 비중을 보였다.

#### 4.1.2 네트워크 분석 결과

3.4.2에서 제시한 분석 방법에 따라, 뉴스 데이터에서 고령화(‘노인’, ‘고령’, ‘고령화’)를 중심 노드로 하는 1-hop 서브그래프를 구성하여 동시출현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담론의 핵심 프레임과 구조적 매개자를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연결중심성 기준 상위 30개 키워드를 〈표 4〉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이 압도적으로 높은 연결 중심성(0.723)을 보이며 네트워크의 핵심 허브로 기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뉴스 담론에서 고령화가 중앙 차원의 추상적 인구 문제라기보다는, 지역사회 단위의 정책 실행과 복지 서비스 체계 안에서 구조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함께 높은 중심성을 기록한 ‘어르신’과

〈표 3〉 뉴스 기사 상위 범주의 시기별 분포 현황

상위 범주	2010-2014	2015-2019	2020-2025
정치·행정·정책	9,077 (36.3%)	9,028 (36.1%)	10,642 (35.5%)
지역 복지·돌봄	7,933 (31.7%)	8,029 (32.1%)	9,323 (31.1%)
복지시설 일반	3,289 (13.2%)	3,373 (13.5%)	5,135 (17.1%)
건강·의료	2,435 (9.7%)	2,483 (9.9%)	2,475 (8.3%)
산업·노동·지역경제	1,504 (6.0%)	1,355 (5.4%)	1,567 (5.2%)
사건·범죄	762 (3.1%)	732 (2.9%)	858 (2.9%)
합계	25,000	25,000	30,000

〈표 4〉 뉴스 기사 동시출현 네트워크 주요 키워드 중심성 지표

순위	키워드	빈도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강도
1	지역	6,337	0.723	0.179	74,019
2	어르신	5,347	0.407	0.029	46,071
3	대상	1,137	0.377	0.028	38,812
4	복지	1,670	0.328	0.035	29,573
5	센터	205	0.324	0.023	31,958
6	정부	1,186	0.312	0.049	24,091
7	사회	1,221	0.305	0.019	25,813
8	한국	1,242	0.302	0.025	30,099
9	서비스	1,301	0.257	0.029	22,084
10	교육	1,275	0.251	0.012	21,695
11	정책	914	0.240	0.029	18,648
12	경제	1,149	0.232	0.019	20,080
13	활동	648	0.230	0.016	18,316
14	방문	1,015	0.214	0.010	20,141
15	행사	774	0.207	0.009	18,347
16	서울	5,828	0.201	0.011	16,270
17	시설	696	0.201	0.007	18,717
18	전국	2,953	0.200	0.010	15,697
19	일자리	2,623	0.200	0.007	17,995
20	건강	1,344	0.199	0.008	17,861
21	소득	546	0.198	0.011	17,704
22	전달	392	0.192	0.008	22,841
23	시민	745	0.191	0.011	13,175
24	문화	835	0.189	0.007	17,522
25	주민	1,216	0.188	0.008	13,892
26	회장	3,364	0.185	0.012	17,472
27	대표	2,324	0.183	0.009	13,072
28	생활	627	0.183	0.007	14,351
29	관리	576	0.182	0.005	14,889
30	장애인	2,240	0.181	0.008	15,972

‘대상’은 노인이 담론 내에서 능동적 시민 주체라기보다는 정책적 지원의 객체로 구성되는 경향을 반영한다. 이러한 네트워크 구조는 노인이 복지 정책이나 돌봄 서비스의 주요 지원 대상 집단으로 제시되는 뉴스 보도 맥락과도 일치한다. 또한 ‘복지’, ‘센터’, ‘정부’, ‘서비스’ 등의 최상위 키워드들은 고령화 문제가 개인의

경험이나 문화적 서사로 분절되기보다는, 제도적 관리와 행정적 대응 프레임 안에서 반복적으로 재구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매개중심성을 함께 고려할 때, ‘지역(0.179)’은 단순히 많은 연결을 가진 허브를 넘어 서로 다른 하위 담론 영역을 연결하는 주요 매개자로 기능하고 있었다. ‘정부(0.049)’ 역시 비교적



〈표 5〉 뉴스 기사 대상 Louvain 커뮤니티 분석 결과

커뮤니티	주요 키워드	주제	해석
1	어르신, 전달, 방문, 행사, 활동	현장 복지 실행	노인 대상 복지 서비스의 현장 운영(방문·전달)과 다양한 실천 활동(행사·활동)을 중심으로 형성된 실행 중심 담론
2	지역, 한국, 문화, 회장, 서울	지역·문화 맥락	지역 단위 조직과 문화적 맥락 속에서 고령화 이슈가 전개되며, 한국·서울 등 공간적 배경이 함께 강조되는 담론
3	복지, 정부, 정책, 위원회, 의원	정책·제도	정부 및 입법기관(위원회·의원)을 중심으로 고령화 대응 정책과 제도 설계가 논의되는 정책 중심 담론
4	대상, 센터, 서비스, 교육, 시설	서비스 운영·대상	센터·시설 기반의 서비스 제공,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복지 전달체계와 대상 집단 중심의 운영 담론
5	사회, 경제, 인구, 전국, 코로나	거시 구조	사회·경제·인구 구조 차원에서 고령화 현상을 조망하며, 코로나 19와 같은 사회적 충격 요인이 결합된 구조적 담론
6	일자리, 기업, 확대, 농촌, 청년	고용 이슈	노인 일자리 정책이 기업·확대 정책 및 농촌·청년 등 노동시장 전반의 인력 구조 문제와 연계되어 나타나는 고용 담론

연구의 주제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LDA 토픽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각 토픽의 의미는 상위 주요 키워드와 토픽 확률(topic probability)이 가장 높은 대표 논문을 함께 검토하여 해석하였는데 토픽 확률은 LDA 모형에서 각 문서가 특정 토픽에 속할 사후확률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 논문에 대해 가장 높은 확률 값을 갖는 토픽을 해당 문서의 대표 토픽으로 할당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각 토픽을 대표하는 주요 논문들을 선정하였다. 〈표 6〉은 토픽 모델링을 통해 도출된 문헌정보학 분야 고령화 관련 연구의 5가지 주요 주제 구조를 제시한 것이다.

학술 논문의 토픽별 분포 비율을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분석 결과, ‘문화·독서 및 정보 격차 대응 프로그램 연구(토픽 5)’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정보행태 및 이용자 특성 연구(토픽 2)’, ‘디지털 정보이용 경험 및 서비스 품질 연구(토픽 1)’, ‘공공도서관 서비스 정책 및 가치 연구(토픽 3)’가 유사한 비중으로 문헌정보학 분야 고령화 연구의 주요 축을 형성하고 있었다. 반면, ‘도서관 서비스 운영 및 디지털

서비스 연구(토픽 4)’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보였다. 다만, 디지털 서비스 관련 논의는 토픽 1, 2, 5 등 타 토픽의 하위 주제로도 다루어질 수 있으므로, 표면적 수치만으로 연구 비중을 해석하는 데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령화 연구 담론의 시계열적 변화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분석 기간을 3개 구간으로 나누어 시기별 토픽 분포를 분석하였다(〈표 8〉 참조). 시계열 분석 결과, 2020년 이후 대부분의 토픽에서 연구가 뚜렷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디지털 정보이용 경험 연구(토픽 1)’와 ‘문화·독서 프로그램 연구(토픽 5)’가 최근 시기에 집중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층의 정보 접근성과 디지털 환경 적응 문제에 대한 학술적 관심이 최근 들어 급격히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4.1에서 뉴스 담론이 디지털이나 정보 격차 이슈를 주변적이고 보조적인 수단으로 다루었던 것과 달리, 문헌정보학 학술 담론에서는 이 문제가 핵심적인 독립 연구 주제로 부상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표 6〉 학술 논문 토픽 모델링 분석 결과

토픽번호	토픽 레이블	주요 토픽 키워드	대표논문
1	디지털 정보이용 경험 및 서비스 품질 연구	만족, 품질, 온라인, 건강, 관계, 정보검색, 디지털, 행복감, 구조, 활동,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대면 시대의 지식정보취약계층 일상생활 정보요구와 도서관 이용 경험에 관한 연구(2021)</li> <li>• 중장년층의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이용이 도서관 인식과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2022)</li> <li>•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노인서비스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2021)</li> </ul>
2	정보행태 및 이용자 특성 연구	모바일, 정보행태, 차이, 사회, 인식, 이해, 대학생, 복지, 행동, 성별, 환자, 질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장년층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모바일 정보이용행태 분석(2015)</li> <li>• 대학생층과 비교를 통한 고령층의 모바일기반 정보행위 분석(2014)</li> <li>• 시니어 도서관 이용행태 비교분석(2018)</li> </ul>
3	공공도서관 서비스 정책 및 가치 연구	공간, 가치, 기록, 사회, 시설, 정보격차해소, 대출, 수행, 정책, 고령화, 기능,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령자를 위한 기록정보서비스 방안 연구(2024)</li> <li>• 공공도서관 이용 가치체계 연구(2019)</li> <li>• 공공도서관 노인서비스 공간 구성방안 연구(2021)</li> </ul>
4	도서관 서비스 운영 및 디지털 서비스 연구	건강, 정보화교육, 디지털, 유용성, 지역, 가이드라인, 프로그램, 구축, 고령화사회, 내용, 응답,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정보검색에서 노인이 경험하는 어려움과 감정변화(2017)</li> <li>• 한글자책 제작 및 보급 현황과 서지적 특성 분석: 2009년부터 2022년까지를 중심으로(2023)</li> </ul>
5	문화·독서 및 정보격차 대응 프로그램 연구	프로그램, 문화, 교육, 디지털리터러시, 지역, 독서, 복지, 장서, 사회, 맞춤, 사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대면 시대 정보요구와 도서관 이용 경험 연구(2021)</li> <li>• 시니어 독서 경험 연구(2025)</li> <li>• 공공도서관 노인 서비스 제언(2014)</li> </ul>

〈표 7〉 학술 논문 토픽별 문헌 분포 현황

토픽번호	토픽 레이블	논문 수	비율(%)
1	디지털 정보이용 경험 및 서비스 품질 연구	10	21.7
2	정보행태 및 이용자 특성 연구	11	23.9
3	공공도서관 서비스 정책 및 가치 연구	10	21.7
4	도서관 서비스 운영 및 디지털 서비스 연구	2	4.3
5	문화·독서 및 정보격차 대응 프로그램 연구	13	28.3
합계		46	100

〈표 8〉 학술 논문 토픽의 시기별 분포 현황

시기	토픽 1	토픽 2	토픽 3	토픽 4	토픽 5
2010-2014	2	2	2	0	2
2015-2019	1	4	3	1	5
2020-2025	7	5	5	1	6

4.2.2 네트워크 분석 결과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 논문에서 사용된 핵심 개념 간의 관계 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동시

출현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도출된 상위 30개 키워드의 중심성 지표는 〈표 9〉와 같다.

〈표 9〉 학술 논문 동시출현 네트워크 주요 키워드 중심성 지표

순위	키워드	빈도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강도
1	사회	31	0.359	0.137	263
2	프로그램	59	0.254	0.064	170
3	지역	22	0.250	0.074	153
4	만족	40	0.227	0.082	134
5	인식	25	0.215	0.067	132
6	활동	21	0.168	0.040	100
7	온라인	23	0.156	0.024	92
8	디지털	29	0.141	0.017	91
9	사서	15	0.137	0.017	78
10	기술	7	0.133	0.016	76
11	교육	21	0.129	0.012	74
12	문화	24	0.117	0.016	73
13	여가	12	0.117	0.015	65
14	기관	7	0.109	0.006	64
15	건강	41	0.105	0.024	62
16	시설	16	0.102	0.008	61
17	정책	10	0.090	0.016	53
18	공간	17	0.078	0.006	46
19	장서	10	0.074	0.002	42
20	소외	4	0.070	0.001	41
21	행태	17	0.070	0.007	40
22	정보격차	6	0.059	0.000	35
23	디지털리터러시	17	0.059	0.000	34
24	한국	5	0.063	0.005	33
25	계층	4	0.063	0.006	33
26	사회참여	3	0.055	0.001	30
27	취약계층	5	0.051	0.000	29
28	신뢰	4	0.055	0.002	28
29	어려움	16	0.051	0.001	28
30	홍보	5	0.051	0.001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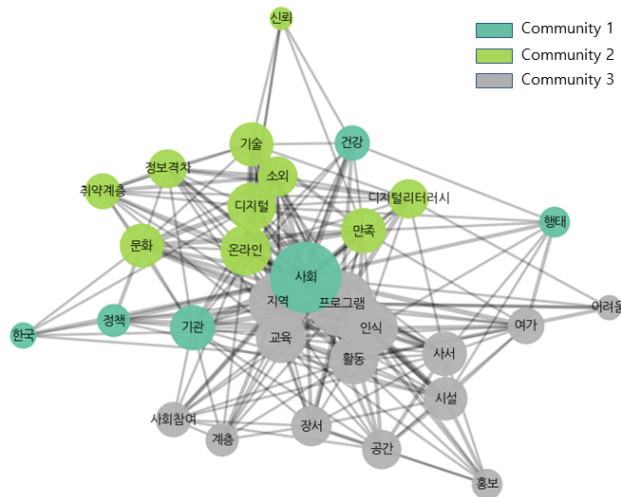
분석 결과, ‘사회’, ‘프로그램’, ‘지역’, ‘만족’, ‘인식’ 등이 높은 중심성을 보이며 네트워크의 허브로 나타났다. 이는 문헌정보학 분야의 고령화 연구가 주로 사회적 서비스 제공 맥락 속에서 이용자의 주관적 경험(만족, 인식)과 구체적인 실천(프로그램, 활동)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앞선 뉴스 기사 분석(4.1.2)에서 주변부로 밀려나 있었던 ‘온라인(7위)’과 ‘디지털(8위)’ 키워드가 학술 담론에서는 핵심 중심 노드로 등장했다는 것이다. 이는 문헌정보학 영역이 고령층의 정보 접근성과 디지털 환경 적응 문제를 주요한 독립적 의제로 심도 있게 다루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어 동시출현 네트워크의 전반적인 구조를 시각적으로 확인하고 하위 주제 군집을 파악하기 위해, 상위 30개 키워드를 대상으로 Louvain 알고리즘을 적용한 커뮤니티 분석을 수행하였다(〈그림 5〉 참조). 분석 결과, 네트워크는 총 3개의 의미 있는 커뮤니티로 도출되었다. 학술 논문 데이터의 특성상 동일 문헌 내 핵심 개념들이 매우 높은 밀도로 조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모듈러리티 값은 0.150으로 다소 낮게 나타났으나, 도출된 군집들은 〈표 10〉과 같이 문헌 정보학의 실제 연구 영역과 의미적으로 뚜렷하

게 부합하는 구조를 보였다.

도출된 3개의 연구 영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사회·제도적 맥락’ 커뮤니티는 고령화와 관련된 거시적 환경과 정책적 조건을 탐색하는 기초 연구 성격을 띤다. 둘째, ‘디지털 환경 및 정보격차’ 커뮤니티는 디지털 리터러시, 정보 소외, 온라인 기술 등 노년층의 정보 불평등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영역으로, 문헌정보학의 고유한 학문적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군집이다. 셋째, ‘도서관 서비스 및 운영’ 커뮤니티는 교육, 장서, 공간, 사서 등 공공



〈그림 5〉 학술 논문 동시출현 네트워크 커뮤니티 시각화

〈표 10〉 학술 논문 대상 Louvain 커뮤니티 분석 결과

커뮤니티	핵심 키워드	주제	해석
1	사회, 기관, 건강, 정책, 행태, 한국	사회·제도적 맥락	고령화와 관련된 사회적 환경, 정책 및 제도적 조건을 중심으로 한 연구 영역
2	온라인, 디지털, 만족, 기술, 문화, 소외, 디지털리터러시, 정보격차, 취약계층, 신뢰	디지털 환경 및 정보격차	고령자의 디지털 환경 적응, 정보 접근성, 정보 격차 및 취약계층 문제를 다루는 연구 영역
3	프로그램, 지역, 인식, 교육, 활동, 사서, 시설, 장서, 공간, 여가 등	도서관 서비스 및 운영	도서관 서비스 제공, 이용자 경험, 프로그램 운영 및 공간 활용을 중심으로 한 연구 영역

도서관 현장의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과 이용자의 여가 및 인식 개선을 다루는 실천적 연구 영역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문헌정보학 분야의 학술 담론은 뉴스 담론이 보여준 거시적·제도적 접근과 달리, 정보 주체로서의 노인과 도서관의 실천적 역할에 집중하는 고유한 지적 구조를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네트워크에서는 '정보격차', '취약계층', '소외'와 같은 키워드가 동시에 나타나 고령자가 정보 접근 및 디지털 환경에서 취약한 집단으로 인식되는 연구 흐름 역시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문헌정보학 연구에서 고령자를 정보 이용의 능동적 주체로 바라보는 관점과 함께 정보 취약성 문제를 주요 연구 과제로 인식하는 이중적 담론 구조가 형성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뉴스 기사 데이터와 학술 논문 데이터 간에는 자료 규모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네트워크 중심성 지표의 절대적 수치를 직접 비교하기보다는 각 텍스트 집합 내부에서 어떤 개념이 핵심 노드로 기능하는지를 중심으로 구조적 특성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

#### 4.3 뉴스 담론과 학술 연구의 고령화 지적 구조 비교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뉴스 담론과 문헌정보학 연구 구조는 지향점과 문제 구성 방식에서 다음과 같은 구조적 차이를 나타낸다.

첫째, 고령층을 바라보는 주체성 인식의 차이이다. 뉴스 담론은 '대상', '정부', '복지' 등의 키워드가 중심 허브를 형성하며 노인을 행정적 관리가 투입되어야 할 수동적 객체로 프레임한다. 반면, 문헌정보학 학술 담론은 '만족', '인

식', '행태' 등 이용자의 주관적 경험과 실천을 나타내는 키워드가 핵심 노드로 등장한다. 이는 학계가 고령층을 단순한 제도의 수혜자를 넘어 정보를 주도적으로 탐색하고 평가하는 능동적 행위 주체로 조명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디지털 및 정보 불평등 이슈의 담론적 위상 차이이다. 뉴스 담론에서 디지털 관련 개념은 거대 코어에 편입되지 못하고 주변부에 머물러 있으나, 문헌정보학 연구에서는 '온라인'과 '디지털'이 최상위 중심성을 기록하며 핵심 독립 의제로 부각되었다. 이는 문헌정보학이 고령층의 정보 기본권 문제를 사회적 핵심 의제로 선제적으로 조명하며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고령자의 인지적 상태를 전제하는 관점과 담론 범위의 차이이다. 뉴스 담론은 치매 등 신체적·인지적 쇠퇴를 국가적 의료 의제로 다룬 반면, 문헌정보학 연구에서는 도서관 내 문화·독서 프로그램 관련 연구에 집중되어 있어 초고령사회의 중대 과제인 인지 취약 계층을 포괄하는 '정보 돌봄(information care)' 논의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라는 한계를 드러낸다.

## 5. 결론 및 제언

### 5.1 연구 결과 요약

본 연구는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고령화에 대한 뉴스 담론과 문헌정보학 학술 담론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뉴스 담론에서 고령화는 주로 정치·행정과 지역 복지의 틀 안에서 국가적 관리

가 필요한 수동적 관리 대상으로 구조화되었다(RQ1). 분석 결과, 뉴스 담론은 거시적 정책 의제와 복지 전달체계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고령화 현상을 개별 삶의 서사보다 제도적 대응이 필요한 객체로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둘째, 문헌정보학 연구는 고령자를 능동적 정보 주체로 인식하며 디지털 소외 문제를 선도적인 핵심 의제로 다루었다(RQ2). 특히 '디지털'과 '온라인'이 네트워크의 핵심 노드로 등장하고 관련 연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문헌정보학 연구가 정보 기본권을 고령화 대응의 본질적 가치로 설정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셋째, 두 담론은 노인의 상태를 전제하는 관점에서 차이를 나타냈다(RQ2). 뉴스 담론이 인지 저하를 주요 현안으로 다루어 온 반면, 문헌정보학 연구는 인지적으로 건강한 층에 편중된 프로그램 연구에 집중해왔다. 이는 초고령 사회의 포용적 정보 서비스 및 공간 구축을 위한 논의의 확장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 5.2 문헌정보학 분야 고령화 연구의 확장 방향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뉴스 담론과 문헌정보학 학술 담론은 고령자를 바라보는 관점과 연구 주제 구조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뉴스 담론이 고령자를 정책적 관리 대상이나 복지 수혜자로 구조화하는 경향을 나타낸 반면, 문헌정보학 연구는 정보 이용과 디지털 환경 속에서 활동하는 능동적 정보 주체로 고령자를 조명하고 있었다. 또한 뉴스 담론이 치매 등 인지 저하 문제를 주요 사회적 이슈로 다룬 반면, 문헌정보학 연구는 인지적으로 건강한 고령층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확인되

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향후 문헌정보학 연구가 사회적 담론과 보다 긴밀하게 연결되기 위해 어떠한 연구 의제를 확장할 필요가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연구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뉴스 담론의 대상화를 극복하기 위한 능동적 정보 복지 담론의 사회적 확산 연구가 필요하다. 분석 결과, 뉴스 담론은 고령화를 여전히 정부의 시혜적 복지나 행정적 관리 체계 속에 가두는 경향이 짙었다. 반면 문헌정보학에서는 이용자 서비스의 질과 정보 활용 과정에서의 주관적 인식을 핵심 가치로 다루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는 학계의 이러한 이용자 중심적 논의가 실제 도서관 현장과 미디어 담론에 투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고령 이용자 대상 도서관 서비스 개발과 확산 및 품질 평가와 같은 기존의 연구에서 나아가 고령자의 정보 기본권이 어떻게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창의적 노화를 실천하는 핵심 기제가 되는지 입증하는 실증 연구를 통해 문헌정보학적 가치를 사회적 담론으로 확장시켜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령자 도서관 서비스의 가치를 의료비 절감 등 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로 환산하는 연구나, 도서관·정보 행위가 노년기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연구는 고령자를 자립적 정보 주체로 격상시키는 문헌정보학적 담론의 학술적 근거를 더욱 견고히 해줄 것이다.

둘째, 인지적 건강층 중심의 연구에서 인지적 취약 계층을 포괄하는 포용적 정보 돌봄 연구로 지평을 넓혀야 한다. 문헌정보학 연구에서 발견된 가장 증대한 공백은 인지 저하 및 치매 고령층에 대한 학술적 관심의 부족이었다.

뉴스 담론은 치매를 국가적 의료 현안으로 비중 있게 다루는 반면, 문헌정보학 담론은 도서관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한 건강한 노인을 암묵적 전제로 삼고 있다. 이는 자칫 도서관 서비스의 잠재적 이용자층을 인지적으로 건강한 집단으로 한정 짓는 보이지 않는 배제를 초래할 수 있다. 초고령사회에서 도서관이 진정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을 지식정보 서비스의 범위 안으로 끌어들이야 한다. 해외에서 논의되는 사회적 처방 모델이나 치매 포용적 도서관의 한국형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인지 저하 계층이 도서관이라는 물리적·정보적 공간 내에서 어떻게 사회적 연결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탐구적 연구가 시급하다.

셋째, 기술 중심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넘어 디지털 삶의 질(digital quality of life)을 조망하는 통합적 접근이 요구된다. 문헌정보학 연구의 상당수가 고령 이용층의 디지털 및 정보 격차에 집중되어 있으나, 이는 주로 기기 활용 교육이나 만족도 조사에 편중되어 있다. 그러나 고령층의 삶에서 디지털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사회와 소통하는 통로이자 자아를 실현하는 환경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는 기술 습득 여부를 넘어, 디지털 환경이 고령자의 심리적

유능감과 정서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특히 AI나 로봇 기술이 고령자의 정보행태에 미치는 영향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윤리적·심리적 이슈를 문헌정보학적 관점에서 선제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뉴스 기사와 학술 논문이라는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를 통해 고령화 담론의 지형을 실증적으로 조망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분석 대상과 방법론 측면에서 몇 가지 한계를 지닌다. 먼저 뉴스 기사와 학술지라는 정형화된 텍스트에 집중함에 따라 고령화와 관련된 이용자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긴 소셜 미디어나 도서관 현장의 질적 서사까지는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였다. 또한 텍스트 마이닝 기법의 특성상 단어 간의 맥락적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분석자의 주관적 개입될 여지가 존재한다. 또한 본 연구는 담론 구조의 탐색적 비교를 목적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토픽 분포나 네트워크 중심성 지표 간 차이에 대한 통계적 검증은 포함하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분석 데이터의 범위를 다각화하고 심층면담 등 질적 연구 방법을 병행함으로써, 고령화 담론의 이면을 더욱 입체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 강보라, 김희섭, 이미숙 (2014). 고령층의 온라인 정보활동과 삶의 만족감 관계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8(2), 159-175. <http://dx.doi.org/10.4275/KSLIS.2014.48.2.159>
- 국가도서관위원회 (2024).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24~2028).

- 권건보, 방동희 (2023). 고령자의 헌법적 지위와 법적 보호에 대한 고찰: 고령자의 디지털 정보접근권의 보장을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24(1), 3-33.  
<http://dx.doi.org/10.31779/plj.24.1.202302.001>
- 김미혜 (2003). 인터넷 신문에 나타난 노인 이미지 분석: 오마이 뉴스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3(1), 13-30.
- 김일식, 김계령 (2019). 노화 패러다임 변화의 필요성: 성공적 노화에서 인간완성으로. *仙道文化*, 26, 329-360. <http://doi.org/10.35573/JKSC.26.9>
- 변미리 (2010). 서울의 베이비붐 세대, 서울의 미래를 변화시킨다 (SDI 정책 리포트 제71호). 서울시 정개발연구원. 출처: <https://www.si.re.kr/atc/filePreview.do?cnncSn=1009070004&cnncTy=bbs&ordr=2>
- 변혜진, 양모란 (2025). 경증치매 노인의 창의적 노화를 위한 집단미술치료 질적 사례연구. *한국예술치료학회지*, 25(1), 147-173. <http://doi.org/10.18253/kart.2025.25.1.07>
- 우명리우, 남광민, 조기준, 최한별 (2024).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한 고령화 사회 언론 담론 분석: 시기별 및 일간지별 비교를 중심으로. *미디어 경제와 문화*, 22(4), 7-50.  
<http://doi.org/10.21328/JMEC.2024.11.22.4.7>
- 윤혜영 (2017). 노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도서관 정책수립의 고려사항.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8(4), 77-105. <http://10.16981/kliss.48.4.201712.77>
- 이우철, 이장석 (2025). 초고령사회에서의 시니어 담론 분석: 언론 보도 분석을 중심으로. *문화산업연구*, 25(2), 353-361. <http://doi.org/10.35174/JKCI.2025.06.25.2.353>
- 이현아, 장우권 (2024). 중·장년층의 디지털리터러시와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41(2), 317-351. <https://doi.org/10.3743/kosim.2024.41.2.317>
- 장로사 (2025). 노인의 온라인 건강정보 공유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6(3), 55-77. <https://doi.org/10.14699/KBIBLIA.2025.36.3.57334>
- 정순돌, 박현주, 김보경 (2011).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관한 인식과 대책: 신문기사를 통해 본 동향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63(4), 203-224. <http://doi.org/10.20970/kasw.2011.63.4.009>
- 차미경 (2018). 국립중앙도서관 노인 대상 도서관 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정보 서비스 개발 연구 (2018 연구보고 11-1371029-000179-01). 국립중앙도서관.
- 최재은, 이정효, 황영은, 문진서, 안민지 (2023). 시니어의 도서관 디지털 정보 이용 요인에 관한 연구: 국립중앙도서관 시니어 이용자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4(4), 179-203.  
<http://doi.org/10.16981/kliss.54.4.202312.179>
- 통계청 (2023). 2022~2072년 장래인구추계. 출처: [https://mods.go.kr/board.es?mid=a10301020600&bid=207&act=view&list\\_no=428476](https://mods.go.kr/board.es?mid=a10301020600&bid=207&act=view&list_no=428476)
- 한선보, 이현심 (2016). 빅데이터와 사회연결망 기법을 이용한 '노인 이미지'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

- 문지, 16(11), 253-263. <http://doi.org/10.5392/JKCA.2016.16.11.253>
- Blei, D. M., Ng, A. Y., & Jordan, M. I. (2003). Latent dirichlet allocation. *Journal of Machine Learning Research*, 3(Jan), 993-1022.
- Blondel, V. D., Guillaume, J.-L., Lambiotte, R., & Lefebvre, E. (2008). Fast unfolding of communities in large networks. *Journal of Statistical Mechanics: Theory and Experiment*, 2008(10), P10008.
- Brewster, L. (2014). The public library as therapeutic landscape: A qualitative case study. *Health & Place*, 26, 94-99. <https://doi.org/10.1016/j.healthplace.2013.12.015>
- Britz, J. J. (2004). To know or not to know: A moral reflection on information poverty.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30(3), 192-204. <https://doi.org/10.1177/0165551504044666>
- Charbonneau, D. H. & Rathnam, P. (2020). Memory cafés and dementia-friendly libraries: Management considerations for developing inclusive library programs. *Journal of Library Administration*, 60(3), 308-315. <https://doi.org/10.1080/01930826.2020.1727282>
- Church, K. W. & Hanks, P. (1990). Word association norms, mutual information, and lexicography. *Computational Linguistics*, 16(1), 22-29.
- Cohen, G. D. (2006). Research on creativity and aging: The positive impact of the arts on health and illness. *Generations*, 30(1), 7-15.
- Goffman, E. (1974). *Frame Analysis: An Essay on the Organization of Experienc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IFLA (2007). *Guidelines for Library Services to Persons with Dementia (IFLA Professional Reports No. 104)*. The Hague: IFLA.
- McCombs, M. E. & Shaw, D. L. (1972). The agenda-setting function of mass media. *Public Opinion Quarterly*, 36(2), 176-187.
- Newman, M. E. J. (2010). *Networks: An Introduc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Rowe, J. W. & Kahn, R. L. (1997). Successful aging. *The Gerontologist*, 37(4), 433-440.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2). *Active Ageing: A Policy Framework*. Available: [https://iris.who.int/bitstream/handle/10665/67215/WHO\\_NMH\\_NPH\\_02.8.pdf](https://iris.who.int/bitstream/handle/10665/67215/WHO_NMH_NPH_02.8.pdf)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Byun, Hye-Jin & Yang, Mo-Ran (2025). A qualitative case study on group art therapy for creative aging in the elderly with mild dementia. *Korean Journal of Arts Therapy*, 25(1),

- 147-173. <http://doi.org/10.18253/kart.2025.25.1.07>
- Byun, Miri (2010). The baby boom generation in Seoul: Transforming the future of Seoul (SDI Policy Report No. 71). Seoul Development Institute. Available:  
<https://www.si.re.kr/atcH/filePreview.do?cnncSn=1009070004&cnncTy=bbs&ordr=2>
- Cha, Mi Kyung (2018).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Library Service Guidelines and Information Services for the Elderly at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Research Report No. 11-1371029-000179-01). National Library of Korea.
- Chang, Rosa (2025). A study on the influencing factors on online health information sharing among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6(3), 55-77. <https://doi.org/10.14699/KBIBLIA.2025.36.3.57334>
- Choi, Jae-eun, Lee, Jung-hyo, Hwang, Young-eun, Moon, Jin-seo, & An, Min-ji (2023). A study on factors related to seniors' use of library digital information: Focusing on senior users of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4(4), 179-203. <http://doi.org/10.16981/kliss.54.4.202312.179>
- Chung, Soondool, Park, Hyun-ju, & Kim, Bokyoung (2011). Public perception and countermeasures on an 'aging society': A content analysis of newspaper article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63(4), 203-224. <http://doi.org/10.20970/kasw.2011.63.4.009>
- Committee on National Library Policy (2024). The 4th Comprehensive Library Development Plan (2024-2028).
- Han, Seonbo & Lee, Hyun Sim (2016). 'Elderly image' analysis using big data and social networking technique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6(11), 253-263. <http://doi.org/10.5392/JKCA.2016.16.11.253>
- Kang, Bora, Kim, Heesop, & Lee, Mi Sook (2014). An analysis of relationship between older adults' online information activities and their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8(2), 159-175. <http://dx.doi.org/10.4275/KSLIS.2014.48.2.159>
- Kim, Ilsik & Kim, Gye-ryeong (2019). Necessity of change in aging paradigm: From successful aging to human completion. *Seondomunhwa*, 26, 329-360. <http://doi.org/10.35573/JKSC.26.9>
- Kim, Mee-Hye (2003). Analysis on image of the elderly in 'OhmyNews' as an internet newspaper.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3(1), 13-30.
- Kwon, Geon-bo & Bang, Dong-hee (2023). A study on the legal protection of the elderly and the guarantee of digital information access rights. *Public Law Journal*, 24(1), 3-33.

<http://dx.doi.org/10.31779/plj.24.1.202302.001>

- Lee, Hyun A & Chang, Woo kwon (2024). A study on the digital literacy and life satisfaction of middle-aged and older peopl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41(2), 317-351. <http://doi.org/10.3743/KOSIM.2024.41.2.317>
- Lee, Woo-Chul & Lee, Jang-Suk (2025). Analyzing senior discourse in a super-aged society: Focusing on news media coverage. *Journal of Cultural Industry Studies*, 25(2), 353-361. <http://doi.org/10.35174/JKCI.2025.06.25.2.353>
- Statistics Korea (2023). Population Projections for Korea: 2022-2072. Available: [https://mods.go.kr/board.es?mid=a10301020600&bid=207&act=view&list\\_no=428476](https://mods.go.kr/board.es?mid=a10301020600&bid=207&act=view&list_no=428476)
- Wu, Mingliu, Nam, Kwang Min, Jo, Gijun, & Choi, Hanbyul (2024). Text mining analysis of media discourse on the super-aging society: A temporal and media comparison. *Journal of Media Economics & Culture*, 22(4), 7-50. <http://dx.doi.org/10.21328/JMEC.2024.11.22.4.7>
- Yoon, Heeyeong (2017). A study on considerations of the library policy establishment to resolve digital divide of older adult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8(4), 77-105. <http://dx.doi.org/10.16981/kliss.48.4.201712.77>

